



KIA 김종국 감독

새 감독 새 출발 KIA 타이거즈 광주 FC 내년시즌 키워드?



광주FC 이정효 감독

KIA 타이거즈 '장타력' ... 광주FC '결정력'

광주 스포츠 팬들을 울렸던 KIA타이거즈와 광주FC가 임인년(壬寅年) 새로 도약한다.

2021시즌 광주 그라운드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KIA는 힘 떨어진 타선 탓에 위압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9위로 시즌을 마감하며 3년 연속 남의 가을 잔치를 지켜보는 신세가 됐다.

광주는 줄부상 속 뒷심 부족을 노출하면서 잘 싸우고도 승점을 더하지 못한 날이 많았다. 결국 2년 만에 K리그2로 강등되면서 도전의 시즌을 맞게 됐다.

아쉬움의 시즌을 보낸 KIA와 광주는 새로운 사령탑을 앞세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첫 외국인 감독 체제가 실패로 끝난 KIA는 '원클럽맨' 김종국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1996년 KIA 전신인 현대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뛰어난 김종국 감독은 2010년 현역에서 물러날 때까지 줄곧 빨간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작전, 주루, 수석코치 등을 맡아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KIA를 떠난 적이 없다.

'명가 재건'을 위해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KIA는 팀을 잘 아는 김종국 감독에게 막중한 역할을 맡겼다. 김종국 감독은 팀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또 특유의 카리스마로 타이거즈의 체질 개선에

KIA 타이거즈

명가 재건 위해 대대적 변화

나성범·황대인·최형우에 기대

나서게 된다.

가장 큰 고민이자 숙제는 '장타력'이다.

올 시즌 KIA는 66개의 팀 홈런에 그치는 등 장타력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했다. 타선의 힘이 떨어졌고, 이를 만회할 스피드와 작전 야구도 부족했다.

김종국 감독 역시 취임과 함께 장타력을 약점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스피드·작전 야구를 이야기했다.

취임에 맞춰 큰 선물도 받았다.

구단은 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이자 광주 출신의 나성범을 6년 150억에 영입하면서 타선에 날개를 달아줬다.

나성범으로 무게를 더한 KIA는 신·구조화를 통

한 화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올 시즌 선배들의 부상으로 기회를 얻은 황대인이 아쉬운 대로 13개의 홈런으로 팀 내 최다 홈런 자리를 차지하는 등 2021시즌 성장세를 보여줬다.

현역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김석환도 KIA가 주목하는 타선의 기대주다. 황대인과 김석환의 선의의 경쟁 속 부상으로 신승했던 최형우와 나지완이 경험을 더해준다면 KIA 타선에 힘이 더해질 전망이다.

꾸준함의 대명사였던 최형우는 올 시즌 막막 이상으로 고전했고, 나지완도 옆구리 근육 파열 부상으로 많은 시간 자리를 비웠다. 한층 어려운 선수단에 베테랑의 경험은 성장세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만큼 최형우와 나지완의 성적도 2022시즌 큰 관심사다.

광주도 이정효 신임감독을 앞세워 새 판을 짜는다. 이정효 감독은 부산의 '원클럽맨'이다. 1998년 부산아이파크의 전신인 대우로얄즈에서 데뷔해 2008년 현역 은퇴까지 한 팀에서 활약했다.

모교인 아주대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전남드래곤즈를 거쳐 2016년과 2017년에는 남기일 감독을 보좌해 광주의 수석코치로도 활약했다.

이정효 감독은 '남기일 사단'으로 2018년 성남

광주 FC

K리그1 승격 티켓 3장으로 늘어

헤이스·엄지성이 화력의 '열쇠'

FC와 2002년 제주유나이티드에서 K리그1 승격을 이끌기도 했다.

광주를 잘 알고, 승격 현장에도 있었던 만큼 이정효 감독에 거는 기대가 크다.

2022시즌 K리그1으로 가는 관문도 넓어졌다. 기존처럼 K리그2 정규시즌 1위를 기록하면 '우승팀' 자격으로 다이렉트 승격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승강플레이오프가 확대되면서 승격 티켓이 1장에서 2장으로 늘었다.

최대 3개 팀이 1부리그로 올라갈 수 있게 된 만큼 이정효 감독은 승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뛰게 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결정력'이다. 올 시즌에도 광주는 특유의 끈질긴 승부를 펼치면서 상대를 괴롭혔다. 시원한 슈팅도 파부으면서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경기 흐름을 완전하게 기울일 수 있는 '한방'이 부족했다. 유효슈팅 수에서 앞서고도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 경기도 많았다.

기대 만큼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헤이스(4골 5도움)가 내년 시즌 화력의 키를 쥐고 있다. K리그 적응은 끝난 만큼 헤이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외국인 선수와의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험을 더한 유스 출신들의 발 끝에도 눈길이 쏠린다.

광주는 올 시즌 강등 아픔을 겪었지만 엄지성과 허을이라는 광주 미래를 발견하는 수확도 있었다.

엄지성은 데뷔 시즌에 37경기에 나와 4골 1도움을 기록했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과감한 슈팅으로 눈길을 끌면서 28일에는 처음 국가대표로도 발탁됐다.

부상으로 고전했던 허을도 뒤늦게 꽃을 피웠다.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신 공격수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광주의 새 전력으로 떠올랐다.

변화의 시즌을 예고한 KIA와 광주가 새 사령탑을 앞세워 '장타력'과 '결정력'이라는 숙제를 풀고, 뜨거운 2022시즌을 연출할 수 있길 지 바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8일(현지시간) 영국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0라운드 사우샘프턴 대 토트넘 홋스퍼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해리 케인(맨 오른쪽)이 득점한 뒤 손흥민(맨 왼쪽)이 다이어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PK 유도 ... 토트넘 패배 막았다

EPL 5경기 연속골은 불발

손흥민(토트넘)이 개인 최다 '정규리그 5경기 연속골'은 놓쳤으나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팀의 승점 획득에 앞장섰다.

손흥민은 29일 열린 사우샘프턴과의 2021-202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0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로 출전, 풀타임을 뛰었다.

27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19라운드에서 3-0 승리에 쐬기를 박는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은 것을

포함해 최근 4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던 손흥민은 이날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정규리그 5경기 연속골에 도전했으나 골 맛을 보지 못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기록은 정규리그 8골 2도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의 1골 1도움 등 공식전 합계 9골 3도움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손흥민은 전반 39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상대 파울을 끌어내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동점 골의 발판을 놔 토트넘이 1-1 무승부를 기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토트넘은 동점 골 장면에서 손흥민에게 파울한 상대 수비수 모하메드 살리수의 퇴장으로 경기 절반 이상을 수적 우세 속에 뛰었으나 추가 골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며 승점 1을 나눠 갖는 데 만족해야 했다.

토트넘은 전반 25분 제임스 워드-프라우즈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다녔다.

케인, 델리 알리와 토트넘 선발 공격진을 구성한 손흥민은 전반 35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예리한 왼발 중거리 슈트로 골문을 겨냥했으나 프레

이저 포스터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4분 뒤 페널티킥을 때내며 경기 흐름을 바꿨다.

센터서클 부근에서 들어온 해리 윙크스의 정확한 스루패스를 수비 사이에서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을 빠르게 파고들 때 살리수가 손흥민을 걸어 넘어뜨리며 경고가 나왔다.

전반 27분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살리수는 퇴장당했다.

키커로 나선 케인이 오른쪽 골대를 골대 왼쪽 구석에 꽂아 넣으며 토트넘은 균형을 맞췄다.

토트넘은 이날 상대(9개)보다 두 배 넘게 많은 21개의 슈팅을 퍼부었고 이 중 11개가 유효 슈팅이었으나 끝내 두 번째 골을 뽑아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손흥민·지소연

'올해의 선수' 선정

대한축구협, 나란히 6회 수상



지소연

손흥민(29·토트넘)과 지소연(30·첼시)이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나란히 6회로 늘렸다.

대한축구협회는 2021년 한 해 소속팀과 각급 대표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대한민국 선수

수를 묻는 조사에서 손흥민과 지소연이 각각 남녀부 1위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남녀부 역대 최다 수상자였던 두 선수는 올해 나란히 6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손흥민은 2019,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왕좌를 지켰다. 이전엔 2013, 2014, 2017년에 올해의 남자 선수상을 받은 바 있다.

손흥민은 2020-2021시즌 토트넘에서 총 22골을 터뜨려 자신의 한 시즌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A매치에는 7경기 출전에 4골을 넣어 국가대표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했다.

언론사 축구 취재팀장 52명에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 15명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 11명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투표에서 손흥민은 총 253점을 얻어 김민재(페네르바체·189점), 황희찬(울버햄프턴·54점)을 제쳤다.

손흥민은 언론사 투표인단 중 47명으로부터 1위 표를 받았고, 전문가 그룹에서는 26명 중 12명에게서 1위로 선택됐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13명이 김민재를 1위로 뽑았다고 축구협회는 전했다.

2010, 2011, 2013, 2014, 2019년 올해의 여자 선수상을 받았던 지소연은 2년 만에 다시 선정됐다.

지소연은 첼시에서 잉글랜드 여자 슈퍼리그와 여자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우승,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기여했고, 대표팀에서도 활약을 이어갔다. /연합뉴스